

南北言語의 乖離・異質化 過程의 特徵

李 承 旭

- | | |
|------------------------------------|-----------------------|
| I. 序 論 | Ⅲ. 北韓의 言語觀 및 言語政策의 轉變 |
| Ⅱ. 南北言語의 國語史的 性格과 北
韓言語의 方言의 特性 | Ⅳ. 語彙整理와 辭典編纂 |
| | V. 結 語 |

I. 序 論

우리 韓民族은 單一民族이며 그 徵表의 하나로써 單一言語를 가진다. 우리는 태초로부터 하나의 言語機構를 통하여 생각하고 表現하면서 創造의 발전의 역사를 成就해 왔다. 이것은 곧 하나의 言語를 가짐으로써 모든 事象을 같은 思考와 認識方法으로 觀照하며, 아울러 同質의 文化樣式을 基層에 깔고 살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言語는 民族의 眞한 血緣의 濃度 못지 않게 우리 精神文化의 精髓 속에 綿綿이 녹아 흐르는 魂脈이 되어 이어졌다. 이 歷史의 命題는 尊嚴한 것이며,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이것을 歪曲하거나 毀損할 수 없는 至善의 象徵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民族自尊에 정면으로 違背할 뿐만 아니라, 言語 그 자체의 고유한 本質까지도 否定歪曲하면서, 이른바 言語革命을 策動하는 集團에 의해 역사상 未曾有의 國어 受難期를 맞고 있다. 異民族의 侵略과 植民地下에서의 國어수난과는 性격을 달리하는 오늘의 상황을 簡明하게 드러내는 한 局面의 현상으로는 우리들의 말을 우리 스스로가 南에서는 ‘韓國語’, 北에서는 ‘朝鮮語(말)’, 심지어는 ‘文化語’로 부를 뿐만 아니라, 서로는 어느 異國語보다도 더 疎遠한 異質感을 가지게 하면서 禁忌語가 되어 있는 사실이다. 비록 이것이 言語外的인 干涉에 따라 目的意

圖的인 統制 때문에 빚어진 皮相의 현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현실을 심각한 憂慮로 받아들여야 하고, 나아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그간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야 할 責任을 痛感하게 된다.

한 言語內部에서 乖離·異質化가 일어나는 要因에는 內·外 두 방향의 작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外的인 요인의 간섭 때문에 언어는 被害者의 입장에서, 당하는 관계에 놓인다. 우리 국의 受難要因도 이런 관계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1945년 南北分斷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占領軍의 地理·軍事·政治의 分掌概念이라고 하나,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體制나 理念에 있어 兩極化를 달리는 悲劇의 分斷國의 試鍊을 갖다 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擴大解釋하여 民族의 分裂이라 하더라도, 우리 언어의 분열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言語史에서도 그 類例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후 북한에서 繼起하고 있는 국어에 대한 一連의 統制·干涉은 언어의 순수 自律性은 去勢해 버리고 언어의 理念化, 武器化를 督勵·強制함으로써 既存의 言語文化를 그 基層으로부터 파괴시켜 왔으며, 그리하여 국어를 一黨이 私有化하는 無謀한 措置를 취해 오는 데 급급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언어의 분단, 즉 그 이상 民族이 가지는 특성 가운데 분단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 사실 言語觀의 對立은 다만 文化現象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상과 밀접하게 連繫되어 시시각각으로 流動하는 인간생활 전반에 걸친 社會現象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대립의 사회적 현상은 일종의 전쟁과도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知的으로 觀念화된 언어의 構造體系는 자체의 自生的 變化欲求에 의하지 않는 限, 他律의으로 요구하는 變革에 대해서는 매우 排他的으로 抵抗하는 강한 保守性的 凝集力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그 構造體系가 파괴되거나 損傷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언어의 自存能力을 확신하는 우리는 언어분단을 戰鬪的인

로 推進해 온 북한의 政策에 대해 歷史와 民族의 이름으로 그 矛盾의 橫暴를 糾彈하지 않을 수 없으나, 窮極의으로는 그것이 無爲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 混條와 侵害의 作態일 뿐, 국어의 발전은 역시 正統의 길에서 不斷이 이어질 것이므로 巨視의으로는 樂觀한다. 그러나, 超然하게 傍觀할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사실 이 문제에 있어 微視와 巨視의 觀點에서 보는 展望은 悲觀과 樂觀이 엇갈리는 不透明性으로 비치기도 해서 判斷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의 언어가 언어의 普遍的 原理로부터 乖離되면서 人爲의으로 畸形化되고 있는 것은 언어구조의 自生的 變遷의 合法則性으로 추진된 것이 아님은 贅言을 要치 않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언어가 국어의 正統性에서 乖離된 異質化를 일으키는 動機나 過程, 그리고 그 결과가 가지는 특성도 전혀 언어적 요인으로 따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문제를 提論할 때 언어 자체의 문제는 且置하고 非言語的 問題 특히 政治理念의 轉變과 같은 일에 敏感하게 되는 직접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本稿의 視角도 부득이 북한의 言語觀이나 政策路線의 問題를 외면할 수 없으며 그런 시각에 서서 그것들이 어떻게 施行되고, 언어현실에 어떻게 反映되어 浸透했는지를 살피게 되었다.

近來 우리는 북한언어의 '異質化'란 말을 흔히 한다. 이 말이 주는 皮相的인 인상은 方言, 즉 한 언어가 地域 혹은 階層間的 특수한 異質性 때문에 分化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變異語라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 마치 生硬한 異邦語로 변해간다는 것처럼 擴大解釋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異質化는 사실 形式論理上으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언어 현실에 있어서는 杞憂에 가깝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이다. 그것은 국어의 本有的 特質, 즉 우리 民族의 歷史와 社會性을 基底에 깔고 있는 언어의 구조 체계의 變質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고유한 文化制度가 그렇듯이

언어의 構造體系는 독특한 固有價値와 秩序를 유지하는 여러 法則들이 有機的으로 조직된 것이어서 表層의 可變의인 現象과는 다르다. 물론 언어의 구조체제도 변한다. 그러나 그것은, 곧 社會的 觀念의 變化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의 內的法則의 規制下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역시 '異質化'와는 성질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異質化의 概念은, 가령 音韻・形態・統辭등 각 層位의 구조체계가 本有的인 특질로부터 乖離되어 다른 특질의 것으로 遁甲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것은 社會文化的 現象에 敏感하게 反應하는 語彙構成에 대한 문제를 이른다. 南北의 모든 것이 오랫동안 斷切됨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문화의 乖離現象이 격심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趨勢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反映하는 남북의 語彙構成에도 乖離現象이 점점 심해질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深化의 정도는 그 背後에 조성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斷切狀態가 지속되는 기간의 문제와 斷切에 對應하여 양측이 취하는 태도와 의지의 문제가 그 二大條件이며, 이것은 곧 乖離의 最少化내지는 極大화와 正比例한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善意만으로 解消되거나 緩化되지 않는 相對性이 있다. 어쩔 수 없이 既定事實화된 이 상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主體는 南北의 言語現象 그 자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은 이러한 배후조건을 만들고 있는 측이 그 주체가 된다. 歷史的 不可避性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국어의 分斷乖離는 가능한 모든 힘을 기우려 그것을 牽制하고 벌어지는 틈을 좁혀야 하는 것이 民族的 當爲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북한에서 主導되어 온 이른바 '言語革命의 事業'이라는 것들은 이를 否定할 뿐만 아니라 逆으로 강력한 黨의 統制로써 국어의 分斷・乖離・異質化를 促進, 極大化하는 措置를 전무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名分으로도 正當化할 수 없는 잘못된 歷史의 眞實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와 統制의 관계에는 그것이 미치는 限界性이 있는 까닭에 주로 語彙構成의 分野에 集中될 수 밖에 없는데, 浸透가 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불행중 다행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했듯이 아직은 異質化의 深度에 대해 悲觀할 단계가 아니라는 認識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지금 북한의 語彙構成分野에 벌어진 상황은 국어라는 언어사회의 構成體를 이루는 한부분의 어떤 특수사회에서 造成되는 一種의 變異語의 特性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것은 넓은 의미의 方言의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II. 南北言語의 國語史的 性格과 北韓言語의 方言의 特性

오늘의 국어분단을 國語史의 사건으로 볼 때 두번째 겪는 역사의 경험이다. 국어의 系統的 源流를 알타이 共通語에까지 溯及하는 과정에서 上古의 국어는 北方系(夫余系)와 南方系(韓系)로 分派되었던 言語的 痕跡을 推定해낼 수 있으며, 그것이 한층 선명해진 것이 바로 高句麗語와 新羅語다.¹⁾ 그러한 分派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그들간의 異質性이 어떤 상태의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당시의 歷史・地理의 分布狀況이나, 그러한 시대가 몇 百年동안 계속되었던 사실만을 勘案하더라도 오늘의 분단상황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乖離・異質化가 심각했으며, 그것은 일부의 구조체계에까지 浸透된 것이었을 推定을 가능케 한다. 그 후 新羅의 통일과 高麗, 李朝로 이어지는 王朝의 變遷史와 국어사가 軌를 같이 할 必然性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으로 간섭을 받을 때도 있었으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으나, 한결같이 하나의 統一된 中央語를 유지하여 다시는 分派된 일이 없었다.

그렇진대 오늘의 상황을 순수한 국어사의 視角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해야 할런지 詳考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불과 半世紀도 안되는 기간에 벌어진 乖離치고는 그 浸透領域이 龐大하며, 速度 또한 빠른 것이 특징인

1) 李基文: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61, N. Poppe: Vergleichende Grammatic der Altaischen Sprachen 1, Vergleichende Lautlehre, Wiesbaden, 1960.

데다가 그것을 강제추진하는 政權의 인 힘이 강하게 작용할 뿐만아니라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歸趣가 매우 우려된다 아니할 수 없다.

본래 북한지역의 언어는 국어의 方言區域 중 西北方言과 東北方言을 포함하는 方言圈의 言語다.²⁾ 한 言語集團은 그 안에 보다 下位單位의 언어 집단을 포함한다. 이때 下位の 집단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집단과의 의존관계에 있으면서 언제나 上位集團에 歸屬하여 그 영향권안에 들어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작은 집단은 언제나 上下左右의 영향간섭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러한 집단간의 連繫는 각 집단의 遠心的 傾向을 阻止하기 때문에 方言은 결코 독립적으로 통일적인 상태로는 있지를 못한다. 그런가 하면, 한 방언집단은 스스로 求心力을 가지는 局面도 있어서 (統一의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遠心的 傾向을 가질 수는 있다. 이러한 언어집단간의 관계는 均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中央語로부터의 간섭은 地理的, 文化的 條件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이 不均性은 遠心的 힘에 의해 각지방에 方言的 差異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方言區域이며, 그것은 주로 地理的, 歷史的, 社會的 理由때문에 생긴 言語的 堤防과도 같다. 이러한 方言의 屬性은 그대로 국어의 西北方言과 東北方言으로 이루어진 北韓地域語에도 적용될 것은 물론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의 共通地盤 위에 있는 것이지 결코 독립적으로 통일적인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오늘의 북한의 언어문제를 옳게 인식하고 본질의 核心에 접근하는 기본적 방향은 어디까지나 이와같은 方言學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것만이 이 언어의 역사적, 사회적 특성과 함께 語彙·文法 혹은 音韻등을 망라한 언어적 變異現象을 객관적인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方言區域의 概念은 많은 부분에서 變質되

2)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狹」語攷' 「河野六郎著作選集 I」平凡社(東京) 1979, pp. 246~269.

었다. 사실 북한의 언어정책은 이 變質을 목표로 해서 계획되고 추진된 것에 불과하다. 즉 북한당국은 본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方言的인 特定地域語를 非言語的이며 人爲的인 수단으로 求心力을 極大化함으로써 그것의 遠心的 傾向을 강화시키는 事變的인 措置를 취했으며, 중국에는 그들 地域語에다가 獨立的인 特質을 부여하는 言語的 謀叛을 감행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는 지리적・역사적・사회적 그리고 人種學的 理由 때문에 생기는 言語的 堤防, 즉 方言區域을 한 언어집단의 정치적, 理念的 理由로 해서 母言語로부터 乖離된 獨立의 狀態가 되게 하는 異變을 劃策했다.

Ⅲ. 北韓의 言語觀 및 言語政策의 轉變

북한의 黨이나 김일성의 敎示가 標榜하는 言語觀은 곧바로 政策이나 연구에 직결되어, 이른바 ‘綱領的 課業’으로 나타나 추진된다. 즉 그들이 국어문제를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까지 屈折誤導해 온 정책이나 연구의 始發點이 되었던 것이 이 言語觀이었으며, 또한 그것이 歸結하는 목표라는 것도 결국 言語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벌어진 국어의 모든 현상적인 일들은 그들이 내세운 言語觀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言語觀 문제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며, 많은 사건적인 일들을 대하기에 앞서 銳意檢討할 이유가 있는 핵심적 문제³⁾가 된다.

分斷後 1950년까지의 기간에 북한은 ‘文盲退治’, ‘漢字使用廢止’를 단

3) 북한의 言語觀의 문제가 단순히 言語認識의 기본관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그것은 政治思想的인 イデオロギ에 從屬하는 下位範疇的인 性格을 가지며, 따라서 言語學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筆者의 다음 논문을 참조.

李承旭: ‘北韓의 文化語에 대한 연구’ 『東亞研究』 18, 1989, 西江大 東亞研究所, pp. 130~136.

행하지만, 아직은 명시적으로 言語觀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 그것은 「朝鮮語文硏究會」의 機關誌 ‘조선어연구’에 掲載된 論文이나 論說을 통해서도 확인된다.⁴⁾ ‘1950년을 맞으면서’에서李克魯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형식주의, 무사상성, 물질치성’을 들어 辛辣히 批判하게 되고 ‘語文의 質的 改造를 위한 연구사업’을 舉論하면서 ‘우리들의 사상을 진정한 맑스-레닌主義의 世界觀으로 무장하고 정치적 의식을 提高시킴으로써 언어에 관한 맑스·레닌主義의 基本命題에 의거한 새로운 언어이론에 踏각하여 조선어문을 연구하여야 한다’⁵⁾고 改革路線을 闡明하고 나선다. 이렇게 擡頭한 ‘맑스-레닌主義의 言語理論’⁶⁾이라는 言語觀은 북한의 언어분야의 모든 이론을 최우선적으로 制壓하여 구속하는 굴레가 되어 1960년대 前半期까지도 그것은 一貫되게 이어진다.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이론과 ‘民族의 主體性 確立’이라는 문제와 맑스-레닌主義 간의 갈등을 표출하는 徵候가 나타나는데, 가령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지도는 조선어학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선어 연구’를 하는 것이 ‘조선어학을 옳은 방향으로 건설’⁷⁾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등이 지배적인 흐름이다. 그간에 몇가지 단계의 迂余曲折⁸⁾을 겪지만 마침내는 김일성이 1964年 1月 3日에 ‘언어학자들과 하신 담화’라는 副題를 붙여

4) 李承旭 上揭論文 p.132, 특히 註 5) 參照.

5) 리극로: ‘1950년을 맞으면서’ 「조선어연구」 제2권 1호(1950) pp.2~7.

6) 1950년 이전의 초기단계에 북한의 언어이론을 이루고 있던 배경은 엔·야·마르의 이론과 「야페트學說」과 그것을 修正한 「新言語理論」이었다. 그것은 「조선어연구」가 每號마다 그것을 紹介하고 해설하는 蘇聯의 論文들을 번역(金壽卿 譯) 掲載하고 있는 것으로도 立證된다. 1950년에 스탈린이 ‘맑스主義와 言語學의 諸問題’에서 마르의 「新言語理論」을 反맑스主義의, 俗類 唯物論的의 見解라고 猛駁하는 데 따라 언어학부문에 있는 所謂 觀念論, 俗類唯物論, 形式主義 등 反맑스主義의 思潮를 철저히 追放하자는 것이다.

7)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우리 조선어학은 힘차게 전진한다’ 「조선어학」 1962년 4호, p.1.

8) 그 대표적인 事件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958년에 단행된 金料率의 肅清이다.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3敎示)를 발표하기에 이르는 데 이것을 分水嶺으로 해서 그들의 理念的인 갈등은 일단 再整備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1955年 主體確立의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 그것을 理論化 내지는 體系化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며, 결국 主體理論과 맑스-레닌主義를 援木시키는 體系로 合理化를 꾀한다. 그리하여 다음 시기에 표방하게 된 ‘맑스-레닌主義의 理論의 創造的 適用’이라는 常套의인 修飾語句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가령, 1964년의 다음과 같은 論說은 그런 斷面이 表出된 徵候다. ‘수령동지의 교시는 언어부문에서 주체성의 구현이며 언어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론의 창조적 적용으로서 리론—실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⁹⁾ 그러면서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니,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더 구체화’하면서 ‘조선어의 주체적 발달방향을 명확히 제시’, 또는 ‘우리의 언어실정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것이며, ‘김일성 동지의 언어사상의 창조성’, 즉 ‘우리 시대의 민족어의 발달과정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총화한 독창적인 견해’로서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새로 기여’¹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어 나온 1966年 5月 14日의 ‘朝鮮語의 民族的 特性을 옳게 살려 나갈 데 대하여—言語學者들과 한 談話’(5.14敎示)에서 顯示의인 사실로 나타나는데 그 동안 南北의 언어부문에 유지되어 온 공통의 地盤을 파괴하는 可히 事變的인 宣言이라 할 수 있다. 양차의 敎示가 국어의 本質을 어떻게 蹂躪하고 결과적으로 언어분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데 대하여는 後項에서 再論될 것이며, 그와 같은 사건이 소위 ‘맑스-레닌主義의 理論의 創造的 適用’이라는 修正된 論理에 의해 誘導되었다는 점에 注目한다.

이와같은 言語觀에 따른 그들의 言語理論은, 언어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

9) ‘훈민정음을 만든 520주년 기념보고’ 「조선어학」 1964년 2호, p. 6.

10) 李承旭의 前掲論文 p. 135.

이며, 그 주된 기능은 通信機能으로서 思想傳達 뿐만 아니라 사상을 직접 형성하거나 그 사상을 보존하는 기능, 즉 思想體現의 機能도 함께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언어는 현실의 意識, 思想形成, 思想保存, 思想傳達, 相互理解를 위한 通信의 機能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기반에서 그들은 '언어사회 성원의 중요한 교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관계하면서 혁명임무를 수행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진보를 위한 건설사업에 적극 복무하는 수단' 또는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도구로서의, 조선혁명 수행의 중요한 무기로서의 조선어의 기능'으로 규정짓고, 나아가 '우리의 언어를 발전과 투쟁의 무기로써 다듬고 손질하여 사용한다'면서, 결국 '革命的 武器'¹¹⁾로 만든다는 것이니, 그들이 국어의 秩序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可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北韓의 언어정책은 그들의 언어관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것과 같은 軌道 위에 있으며, 따라서 그 轉變의 영향을 받을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북한 언어정책 내지는 국어의 변질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구획되는 것은 역시 1.3敎示와 5.14敎示가 된다. 즉, 이 교시가 나온 前時期와 後時期는 국어부문의 모든 영역에 있어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일들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筆者는 그 특징을 集約하고 구별하여 각각 '標準語時期'와 '文化語時期'로 規定하는 拙見을 提案해 왔다.¹²⁾

이와같은 근거로하여 '標準語時期'는 1945년~1966년을 한 단락으로 하여 구획하게 되며, 이 기간에 추진 전개한 그들 특유의 정책이나 사건적인 轉變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래도 서울말을 기초로 하는 中部語, 즉 전통적인 표준어를 그대로 公用語로 규정하여 그것을 堅持한 정책은 이 시기에 일관되는 특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修正變造되어

11) 「조선로동당 지도부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과학원출판사, 1962, p. 16.

12) 李承旭 前掲論文, p. 142.

加減現象을 광범하게 빚지만 그 基層語를 흔들어 댈 수는 없었던 것이나 그것은 국어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다는 名分 때문이 아니라 국어의 역사 사회적 특성이 그것을 용납치 않는 言語的 抵抗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留保되어 온 難題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지역어는 서울의 표준어의 강한 求心力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을만한 자체의 求心力을 가진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方言的 特徵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는 자체의 구심력을 갖지만 그 힘이 표준어로부터 離脫하여 獨立的으로 있게 하는 遠心力을 이룰만치 강한 것은 못된다. 북한지역어, 즉 국어의 西北方言과 東北方言은 분명히 방언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과 표준어와의 隔差가 異質的인 관계에 있다고 할만치 큰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無所不爲의 힘을 행사한 그들임을 勘案한다면, 비록 국토와 민족의 分斷狀況이었지만 20餘年 동안은 적어도 公式的으로는 言語的 分斷狀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注目해 봐야 할 일이다.

표준어시기에 그들이 정책을 표방하여 상투적으로 관용했던 말은 ‘朝鮮語文의 統一과 發展’¹³⁾이었다. 이 旗幟아래 그들이 계획 추진한 施策은 주로 (1) 文盲退治, (2) 漢字使用廢止 (3) 言語規範化와 文風改善 등이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광복 당시 文盲率은 인구의 $\frac{1}{4}$, 250餘萬名이 成人 文盲이었으며, 1949년 초까지는 완전히 退治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국어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한편으로는 難解한 것이 바로 한자사용 폐지문제다. 표면적인 현상으로 보면 그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일로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그것과 긴밀하게 連繫關係에 있는 모든 분야에서惹起되는 혼란과 충돌은 가히 變革이라 할만하여, 既往의 語彙構成體系를 바꿔야 하는 사태로까지 이르게 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보면 한자사용

13) 1948년 ‘조선어문연구회’의 발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확인된다. ‘...1948년 10월 2일, 내각 제4차 각의에서, 조선어문의 통일과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일층 강화 추진시키기 위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75호를 폐지하고 교육성내에 조선어문연구회를 설치하고...’ ‘조선어문연구회의 사업전망’ 「조선어연구」 창간호(1949) p. 134.

폐지가 언어의 乖離를 加重시키는 主要因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自然言語를 變態적으로 異質化하게 한 契機를 제공한 격이 되었다. 漢字語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 漢字를 떠났다고 할 때 점차로 語形의 原音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된다는가, 漢字의 語源을 잊어버리므로써 意味保存이나 傳達에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특히 '漢字語生産의 物質的 根源을 清算'한다는 문제는 국어의 造語能力이나 방법에 致命的인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다. 한자사용폐지에 따른 이와같은 부작용을 예기치 못했던 것은 아니겠으나, 그 충격은 의외로 컸던 것으로 보이며, 雪上加霜으로 造語力의 萎縮, 停滯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수한 政治, 經濟, 文化 등 새로운 社會的 革命과 建設이라는 변화에 수반되는 語彙需要는 急增하게 되는 進退兩難의 困境에 처했던 것이다. 그러한 혼란의 渦中에서 語彙整理事業이라는 무리한 정책을 소위 전투적으로 강행하는데, 이때문에 국어의 異質化의 골이 깊이 파이고 넓어져 갔던 것이다. 어휘정리에서 파생되는 어휘교체나 '말다듬기운동'은 당초 한자폐지와 한자어문제에 동기된 것이었으나, 그것의 歸着은 단순히 한자어의 수습에 그치지 않으며, 국어의 語彙構成體系를 改造하는 데까지 확대하게 되어, 결국은 文化語時期의 前段階를 整地하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언어사용의 規範化, 즉 표준어, 철자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등을 정비 제정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언어의 규범화사업은 많은 경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방언에 기초'¹⁴⁾를 두고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며, 그 기본체계가 크게 변질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어휘정리사업과 밀접히 관련하여 추진한 과제의 하나는 이른바 '人民性原則'에 입각한 文風改善이라는 것으로서, 非人民의 요소를 속아버리며,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理論實踐의 제반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일련의 이런 시책이 전통적인 표준어의 기반으로부터의 乖離를 추구하면서 異質性을 增殖시키는 合目的的인 특성을 가

14) 「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 개화발달한 우리 민족어」 과학원출판사, 1962, p. 148.

진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래도 ‘조선어문의 통일과 발전’이라는 路線의 命脈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文化語時期’는 1964 年의 1.3 敎示가 언어문제의 정면에 나오면서 예고 되고, 1966 年의 5.14 敎示가 이를 결정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공식화된다. 이것은 ‘맑스-레닌主義의 理論의 創造的 適用’에 따른 정책노선의 수정전변이며, ‘언어학에서도 주체를 세워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터를 잘 닦아야 한다’면서 ‘平壤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國語分斷의 宣言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선언적인 성격을 지니서 그것의 실천적인 강화책으로써 特定機關에 統制權까지 주고 있다.¹⁵⁾ 그것은 이미 1.3 敎示가 어휘정리단계에서 강한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정리와 新造語를 統制하는 기관으로 言語文學研究所를 지정하고 있다. 그것이 5.14 敎示에 그대로 이어짐은 물론이고, 여기에 다시 外來語 및 學術用語에 대한 統制를 國語査定委員會가 맡아 하도록 追加委任된다. 兩次的 敎示가 가진 특성 가운데 看過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統制機能이라는 것이다. 언어부문의 모든 분야에 작용하게 되는 이 통제기능은 文化語라는 目的意識의로 만들어진 人造語를 定着시키기 위해서 취해진 積極的인 수단임이 확실하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文化語는 言語外的인 통제기능의 庇護를 받고 형성될 뿐만 아니라, 유지되고 普及浸透하게 되는 특성이 賦與된 언어인 이상 文化語時期의 북한언어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統制機能의 지배하에서 畸形的으로 屈折되고 變態的으로 造形되어가는 非言語的 現象들로 點綴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15)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言語學者들과 한 담화, 1966년 5월 14일」 北韓言語政策資料集, 極東問題研究所, 1973, pp. 18~26.

IV. 語彙整理와 辭典編纂

북한은 일찍부터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重視한 나머지 정부차원의 研究機關을 설치운영하면서 언어부문의 모든 정책이나 연구를 관장케하여 소위 언어의 理論-實踐의인 課業을 수행하는 기능을 委任해 왔는데, 社會科學院 言語學研究所¹⁶⁾가 그것이다. 敎示나 黨의 이름으로 지시되는 정책들이 사실상 이 연구소가 立案提示하는 문제에 대하여 政治性을 부여하는 일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북한의 언어문제를 깊이 파악하려면 이 연구소의 모든 것을 밝히는 일이 급하나 지금의 여건으로는 期待하기 어렵다.

북한의 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은 語彙整理였다. 體制와 理念이 다른 사회를 혁명하고 건설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등장하는 북한은 그 출발에서 이미 語彙整理의 不可避性을 孕胎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사회의 質的인 변화나 文化樣式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휘문제보다도 먼저 나타난 것이 漢字使用廢止에 따른 漢字語의 處遇와 對應문제였다. 그것은 既存語를 非漢字語로 交替하거나 廢語化하는 정리단계의 일만이 아니라, 새 한자어의 造語가 封鎖됨으로써 일어나는 造語機能의 停滯는 매우 심각했던 것 같다. 1950 년대의 북한의 언어상황은 이와 같은 혼란과 自家撞着의 갈등이 최고조로 나타났던 때로서 당시의 科學院言語文學研究所 機關誌(1958~1965) 「말과 글」은 그것을 잘 反映하고 있다. 前半期の 혼란과 1958년의 金料奉肅淸 이후 終半에 이르러 새로운 主導勢力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상황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대적인 語彙肅淸이 추진되는 양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前無後無하게 言語實踐의인 취지에 偏向한 통속적인 대중잡지를 研究所의 機關誌로 가진 것만으로도 이 시기의 특성은 알만하다.

그러나 1960年代에 와서는 한자어의 정리지침도 어느 정도 분명해지고

16) 이 研究所의 概況에 대하여는 李承旭: '北韓의 國語研究와 言語政策' 「東亞研究」 14, 西江大 東亞研究所, 1988, pp. 50~51 를 참조.

그동안 상당한 施行錯誤의 과정에서 거둔 성과를 기초로 하여 이제는 語彙構成의 質的인 變革이 전면에 등장한다. 그것이 획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1.3 敎示, 그리고 5.14 敎示다.

語彙整理의 가장 큰 목적은 국어의 단어체계를 單一化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固有語와 漢字語의 두 系列로 되어 있는 단어체계를 固有語體系가 되도록 정리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消極的인 漢字語를 縮少退化시키면서 대신 고유어를 다듬어 쓰는 氣風을 提高시켜 결국 그들의 評價에서 否定的인 것들을 整理追放하는 한편, 肯定的인 것들을 積極化함으로써 語彙體系를 주체적인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자어라 하더라도 국어의 어휘구성 안에서 처리하는 성격이 一律的으로 똑 같지 않으며, 한자어를 그와 同意 또는 類義關係에 있는 고유어로 交替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가령, ‘머리’의 意味 가운데 하나가 ‘頭惱’라 하여, ‘頭惱’를 없앨 수 없으며, ‘造成하다, 製作하다. 作成하다...’ 대신 ‘만들다’를 써도 되는 경우가 많다해서 ‘造成하다...’를 없앨 수 없으니, 그것은 種概念과 類概念 사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形式理論로 보면 劃一的인 單一化의 妥當性이 인정될런지 모르나, 언어의 合法則性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러한 형식논리의 적용을 받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일을 밀고 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가로막았던 것도 사실이며 결과적으로는 체계의 완전한 단일화는 留保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次善策으로 일부의 적용가능한 한자어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折衷的인 査定方案을 채택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漢字新造語는 封鎖된 상황이고, 새로운 단어조성은 固有語根에 기초한 것이라야 하는 원칙이 壓倒하게 됨으로써, 人爲的인 變造語를 量產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어휘구성과 국어의 전통적인 어휘구성 사이의 乖離는 高調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런 施策들은 南北言語의 均衡이나, 自然言語의 법칙에 입각한 것이 못했기 때문에, 어휘구성에서의 變質化 傾向은 社會・文化的 變質과 함께 相乘하여 갔다.

語彙整理는 정리된 결과를 고정시키고 대중속에 普及浸透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言語의 規範을 한데 모아 實踐의 基準이 되게 하는 辭典의 編纂에도 정책적인 힘을 기울인다. 辭典의 機能은 語彙의 固定化나 規範化만이 아니라 收錄되는 어휘는 그 時代와 社會에 비친 모든 事象을 망라하며 또한 연구가 結集하여 이루어지는 언어이론의 精隨가 反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時代와 社會가 수용하는 언어의 모든 것을 內藏한다. 그런데 북한은 辭典의 중요성을 사전교유의 기능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概念으로 인식하여 일찍부터 사전편찬에 注力해 왔다.

김일성은 1.3 敎示에서 「조선말사전」¹⁷⁾을 酷評하면서 辭典編纂의 一大 轉變을 促求하는 새 路線을 闡明했다. 이것에 근거해서 執筆한 듯한 金壽卿의 ‘새로운 조선말사전편찬을 위한 몇가지 문제’¹⁸⁾란 題下의 논문은 단순히 앞으로의 사전이 갖는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 次元의 문제를 훨씬 뛰어 넘어, 언어부문 전반에 걸쳐 그 基層을 흔들어 그 轉變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면밀히 분석검토해 봐야겠다. 결과론적인 평가지만, 이 논문이 발표된 다음해인 1966 年의 5.14 敎示의 基本要旨가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捕捉되며, 뿐만 아니라 다음 時期의 사전편찬은 물론, 北韓의 언어상황의 전개가 또한 이와 같은 脈絡의 배경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北韓 국어학의 主導權 싸움이 어떠한지 그 內幕은 알 길이 없으나, 이 시기에 金壽卿의 理論이 既存理論을 壓倒하면서 다음 시기를 이끌어 갈 主導的인 地位를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金壽卿은 論文에서 앞으로의 辭典은 ‘주체성 있는 사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혁명에 직접 이바지하는 사전’, ‘주체성 있는 발달에 이바지하는

17) 이에 대한 간략한 解題와 紹介는 李承旭 前掲論文 pp. 60~62 참조.

18) 「조선어학」 1965년 4호 pp. 8~17.

사전', '주체성 있는 사전편찬이론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전'을 의미한다면, 이 요구는 單語의 撰擇과 註釋의 문제를 옮겨 처리함으로써 충족된다고 하였다. 註釋辭典은 일반적으로, 1) 語彙構成反映의 機能, 2) 言語規範化的 機能, 3) 認識-敎養의 機能을 가지는데, 단어선택의 문제는 바로 語彙構成反映의 機能에 관여하는 語彙收錄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국어'의 두 가지 의미, 즉 '현대국어표준어'라는 의미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어의 總體'라는 의미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그는 前者의 국어, 즉 '현대조선어표준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語彙構成反映의 기능의 범위를 이처럼 縮小制限하는 '국어'의 概念規定은 참으로 자연언어의 有機的 自存力の 脈을 끊는 暴舉가 아닐 수 없는 중대한 誤謬였다.

金壽卿은 다시 '국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客觀主義的으로 反映하는 것이 아니라, 語彙整理와의 관계에 비추어 語彙反映에서의 規範化的 役割, 語彙發達에서의 先導的 役割을 뚜렷한 목표로 삼은 것만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1) 현대국어표준어의 語彙體系를 반영하되 객관주의적 반영이 아니라 語彙整理의 입장에서 반영, 2) 語彙規範化的 性格은 단어의 의미, 문법, 문체 및 발음의 측면,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를 규범화하는 데서 나타나야 하나, 우선 무엇보다도 어휘의 선택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다가 언어사용상의 統制的 機能을 부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3) 또한 註釋辭典으로서의 認識-敎養의 機能을 가짐은 물론이라는 것이다. 결국 종전의 사전들이 가지는 기능을 가지기는 하되, 그 내용의 質은 전혀 다르고, 특히 이밖에도 또 하나의 統制的 機能을 부여한다는 데 대하여는 종전의 사전에서 그 類例가 없는 專橫的 特性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註釋辭典은 參考辭典의 性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金壽卿은 이것과 대립하는 별도의 特殊辭典이 될 統制辭典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 이유로는 역시 어휘정리에서 거둔 성과를 固着시키는 문제, 그리고 '혁명에 직접 복무할

사전을 편찬할 때 대한 당적 요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굳이 비판할 가치도 없거니와, 그 어느 하나도 순수한 국어의 어휘발달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언어적 이유는 아니다. 사전이 統制的 機能을 가진다는 發想 자체가 그들이 아니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順理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우선 이 사전의 統制機能은 收錄된 단어만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는 쓸 수 없다 한다. 그럴진대, 그들이 요구하는 趣旨에 부합하는 단어라도 어떻게 모두 收錄할 것이며, 어휘를 劃一的인 틀에 가두어 고정시킴으로써 自生的인 造語能力이 萎縮하고 停滯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暗澹하다. 그래서 그는 통제기능이 미치는 범위를 주로 일반용어 내부에 한정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附言한다.

다음은 收錄될 어휘체계와 관련하는 문제다. 위에서 말했듯이 어휘정리에 토대한 현대국어표준어 어휘체계를 수록한다고 하는데, 어떤 한 時期의 어휘구성을 정확히 구획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아니라 일정한 시기의 사회집단의 단일한 언어의식에 토대한 그 언어의 어휘체계를 명확히 규정짓는다는 것도 至難하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金壽卿은, 첫째로 현대 국어표준어의 어휘라 할 때 '현대어의 어휘'를 '바로 오늘날의 어휘', '새로운 사전을 편찬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의 어휘'로 규정한다. 이른바 낡은 어휘 가운데서 廢語나 古語는 여기에 들 수 없다. 뿐만아니라 한 단어의 여러 意味 가운데서 오늘날 쓰이지 않게 된 의미도 排除된다. 그런데 문제는 所謂 '時代語'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부딪친다.

時代語는 비록 과거에 속하는 단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존재하던 對象現象, 概念들을 表象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歷史部門의 專門用語에 準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어의 어휘체계에 넣는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그 限界는 모호하며, 특히 그들이 思想政治敎養에 필요한 어휘라고 하는 所謂 혁명전통교양자료라는 것에 쓰이고 있는 1930 년대의 어휘와 日帝時代

의 어휘의 처리문제에서도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는만큼 이것들이 가리키는 對象現象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消極的 語彙에 넣을 수 없다는 式으로 그들은 任意的으로 獨斷한다.

한편 金壽卿은 南韓의 언어에 대해서도 言及한다. 즉 북에서는 時代語가 되어버린 어휘가 남한에는 아직 그 대상현상이 존재함으로써 時代語가 아닌 단어들이나, 光復後 새로 造成된 단어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우리의 과업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조선어를 발달시켜야 할 과업을 옳게 통일시켜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따라서 남한의 언어현상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말을 주체성있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북반부의 말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데 歸結시킨다. 이와 같이 국어인식이 跛行的으로 硬直化되고 傳統的인 標準語概念이 屈折變質되고 있는 사태는 우리 언어부문에 事變的인 轉變을 促求하는 일련의 計劃된 움직임이었다는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單語選擇의 문제와 함께 국어 어휘분야에서 可恐할 변화의 劃策은 質的으로 구별되는 註釋이 요구된다면서, ‘당성, 과학성, 인민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국어 異質化의 核心的인 문제라 이니 할 수 없다. 말하자면, 收錄語彙, 즉 언어생활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語彙數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은 허용된 어휘의 의미까지도 規制하여 허용된 의미 이외의 의미는 去勢한다는 것이니, 觀念의 歪曲變質도 서슴치 않겠다는 놀라운 發想이다. 가령, 例示된 것을 보면, ‘당’이라 할 때 그것은 곧 ‘조선로동당’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지 일반적인 ‘당’의 의미를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고, ‘혁명가요’ ‘아동당’을 단지 ‘혁명적인 가요’, ‘아동들의 집회조직’과 같이 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한다. 다시 여기에

국어적인 특성이며 文體論의인 色彩補充의 語感 등을 찾아 내고 밝혀내며 '주석에서 조선로동계급의 리해관계를 옹계 반영'하는 것이 주체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漢字語彙의 주석방식에서 가령 '아담하다'를 '고상하고 담박하다'로, '야비하다'를 '야하고 비루하다'처럼 두 漢字의 算術的 結合으로 바서는 안되며 語彙意味論的 構造에서 單一化된 語彙體系를 확정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V. 結 語

이상 金壽卿이 1965年「조선어학」에 실은 '새로운 조선말사전편찬을 위한 몇가지 문제'의 論旨를 검토했다. 그것은 단지 사전편찬분야의 문제가 아니었다. 북한의 어휘체계를 그 量이나 質에 있어 從來의 傳統的인 典型으로부터 철저히 斷切, 離脫시킬 수 있는 일련의 非言語的 手段을 提論함으로써, 결국 국어생활의 역사·사회적 基底의 意識·觀念을 바꿔놓으려 했을 뿐만아니라, 그 주장이 그대로 다음 시기의 현실로 나타나 국어의 分斷, 그리고 異質化로의 促進이 다그쳐졌으니, 이 論文이 갖는 국어의 역사 사회적 의미와 책임은 그만큼 莫重한 것이었다. 그런 이유에서 자세히 省察했거니와 그 가운데서 국어생활의 바탕을 흔들게 될 毒素인 조항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주체성있는 사전의 大前提下에서, 첫째로 統制辭典의 特性을 지닌 것이 되게 한다. 둘째 單語選擇, 즉 收錄語彙의 構成을 '現代朝鮮語標準語'만으로 規制한다, 셋째로는 意味註釋에서 黨性, 科學性, 人民性의 原則이 관철되게 한다는 것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어휘체계에서 각기 다른 분야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라 할지 모르나, 실제로 이들 중 어느 하나의 規制만으로도 국어의 自律性은 無慘히 蹂躪되고 말 것이니, 이 세 규제가 함께 발동할 때의 威力은 가히 기존 어휘체계를 뒤흔들고도 남으며, 나아가 그들의 계획된 轉變으로 밀어 붙일 힘이 되기에 足하다.

아무튼 이와 같은 金壽卿의 提論을 결과적으로 金日成이 同識하고, 그것을 採擇宣言한 것이 바로 다음해(1966년)에 나온 5.14敎示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전통적인 서울중심의 표준어의 命脈을 지녔던 시기는 끝나고, 金壽卿의 提論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어휘구성의 체제로 탈바꿈되는 文化語時期가 앞에 다가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擡頭될 文化語의 實體가 어떠한지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국어의 공통지반을 떠나 異質化가 일어나는 現象을 원인적으로 追求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異質化의 對象 또는 그것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진행하는 방향등을 分析, 解明하는 동시에 批判, 評價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도 一助한다 하겠다.

그런데 그의 提論은 결코 우연히 갑작스럽게 나타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적어도 20년에 걸친 여러 段落의 변화과정에서 胚胎된 일이며, 특히 단지 언어요인만이 아닌 體制理念의 轉變에 從屬적으로 작용하는 壓力에 밀려 모든 部門이 동시적으로 겪는 일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標準語時期가 文化語時期로 轉變한다는 것은 결국 ‘맑스-레닌主義의 言語理論’이 ‘맑스-레닌主義의 創造의 適用’, 다시 말해서 ‘主體的 言語理論’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區劃의 時期는 1964년의 1.3敎示가 그 胎動을 알렸고, 1966년의 5.14敎示가 事變적으로 宣言함으로써 公式化되었다.

繼續적으로 이어진 言語部門에 대한 措置들은 그들이 이른바 革命과 建設을 하기 위하여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수단으로 使用하자는 목적에 기초한 것이었고, 따라서 語彙構成分野의 일들이 主對象이 되었다. 그것이 요구되는 初期的인 動機는 漢字使用廢止의 副作用과 같은 것이었으나, 이것을 契機로 하여 그들은 전반적인 語彙整理事業으로 擴散시키는 동시에 국어의 語彙體系를 單一化하고 어휘구성에다가 黨性, 政治性, 人民性따위를 부여한다는 데까지 강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것이다. 言語의 内外의 情況이 이에 加勢하면서 북한의 언어는 국어와의 乖離의 間隔이 급속

히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으나, 5.14 敎示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서울말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의 地盤 위에 서서 국어의 統一的 발전을 지향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北韓의 言語는 국어의 言語 社會構成體의 한 부분이며, 어떻게 달라진다 해도 그것은 한 부분의 어떤 特殊集團에서 造成되는 一種의 變異語的 特性에 지나지 않는 方言的 現象 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 言語問題의 바른 認識은 넓은 의미의 方言學的 原理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特性이 있다.